



필리핀 한국 상공회의소 뉴스 KOREAN CHAMBER OF COMMERCE PHILIPPINES NEWSLETTER



July 2025 Issue | Vol. 50

SPECIAL POINTS OF INTEREST

- 트럼프-마르코스 회담 이후 필리핀 무역 협상, 소폭의 관세 변화 이끌어내 — page 1-2
- 주한 한국대사, 필리핀 관광에 대한 신뢰 재확인 — page 2-3
- ADB, 2025년 필리핀 경제 성장률 5.6% 전망 — page 3-4
- 상품 수출에 대한 제한된 의존도가 필리핀의 지속 가능한 성장 잠재력을 높인다 — page 4-5
- 2분기 무역 긴장 속에서도 한국 경제 0.5% 성장 — page 5
- 경제 단체들, 20대 의회에서 22개 개혁 조치에 대한 행동 촉구하며 대통령과 국회의원들에게 압박 — page 6
- 필리핀 수출업체들, 미국의 19% 관세로 '험난한 등정' 직면 — page 6-8

UPCOMING EVENT

- [July 30, 2025] 제1회 그랜드 트라이컨티넨트 골프 챌린지 — page 9

트럼프-마르코스 회담 이후 필리핀 무역 협상, 소폭의 관세 변화 이끌어내

July 23, 2025 | By Reuters | Malaya Business Insight



U.S. President Donald Trump, flanked by Treasury Secretary Scott Bessent, Secretary of State Marco Rubio and Defense Secretary Pete Hegseth, meets with Philippine President Ferdinand Marcos Jr., at the White House in Washington, D.C., U.S., July 22, 2025. REUTERS PHOTO

By *Andrea Shalal and Trevor Hunnicut*

July 23, 2025 7:19 AM GMT+8

요약

- 트럼프, 무역 합의는 '거대한 수치' 포함한다고 언급
- 필리핀, 트럼프가 위협한 20%보다 낮은 관세율 원해
- 트럼프, 필리핀의 중국과의 거리 두기 행보에 찬사

워싱턴, 7월 22일 (로이터) -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화요일(마닐라 기준 수요일),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주니어 필리핀 대통령의 백악관 방문을 "아름다운 방문"이라고 표현하며, 필리핀산 상품에 대해 새로운 19% 관세율을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반면, 미국산 상품은 관세를 전혀 부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새로운 관세율은 이달 초 트럼프 전 대통령이 위협했던 20%보다는 약간 낮지만, 지난 4월 설정된 17%보다 높은 수준이다. 당시 트럼프는 수십 개국을 대상으로 이른바 상호주의 관세율을 발표한 바 있다. 이번 필리핀 관세율은 인도네시아에 적용된 **19%**와 같으며, 베트남 (20%)보다 낮은 수준이다.

트럼프는 백악관 오벌 오피스에서 마르코스 대통령과 회담한 직후, 자신의 SNS 플랫폼인 트루스 소셜(Truth Social)에 이 같은 소식을 올렸다. 그는 회담 도중 이번 방문 기간 중에 무역 합의가 이뤄질 수 있다는 신호를 내비쳤었다.

"아름다운 방문이었습니다. 우리는 무역 합의를 마무리했고, 그 결과 필리핀은 미국과 시장 개방 및 미국산 제품에 대해 '관세 제로'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필리핀은 19% 관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라며 트럼프는 마르코스 대통령을 "매우 훌륭하고 강단 있는 협상가"라고 칭찬했습니다.

트럼프는 또 양국이 내년 수교 80주년을 맞아 군사 협력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마르코스 대통령은 트럼프의 두 번째 임기 중 미국을 방문한 첫 동남아시아 정상으로, 회담 시작 전 기자들에게

"미국은 우리나라의 가장 강력하고, 가장 가까우며, 가장 신뢰할 수 있는 동맹국"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가 새 관세율을 발표한 이후에는 별다른 논쟁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Cont. page 2]

트럼프-마르코스 회담 이후 필리핀 무역 협상, 소폭의 관세 변화 이끌어내

[Cont. from page 1]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번 무역 합의에 포함된 "매우 큰 수치들"은 앞으로 더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미국은 필리핀과의 양자 상품 교역에서 235억 달러 규모를 기록했으며, 미국의 무역 적자는 약 50억 달러에 달했다.

트럼프는 거의 모든 교역국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면서 세계 무역 흐름을 뒤흔들었으며, 4월부터는 대부분의 국가에 10% 관세가 적용되었고, 8월 1일부터는 더 높은 추가 관세가 부과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워싱턴 소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동남아 전문가 그레고리 폴링(Gregory Poling)은 인도네시아 및 베트남과의 유사한 사례처럼, 구체적인 내용이 아직 공개되지 않았기 때문에 필리핀 무역 합의에 대해 말하기엔 시기상조라고 평가했다.

“결국 필리핀 정부는 자국 제품이 이웃 국가들과 경쟁력을 유지하기만 한다면 최종 관세를 자체에 너무 큰 부담을 느끼지는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번 합의는 그러한 조건을 충족합니다,” 라고 폴링은 말했다.

백악관은 화요일 미국-인도네시아 무역 협정에 대한 기본 틀의 추가 세부 내용을 발표했으며, 향후 몇 주 안에 협상팀이 최종 조건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오벌 오피스 회담 중 트럼프는 "머지않은 미래에 중국을 방문할 수도 있다"고 밝혔고, 작년 11월 자신의 당선 이후 필리핀이 중국과의 거리를 두기 시작했다고 지적했다.

“필리핀은 아마 중국 쪽으로 기울고 있었지만, 우리가 매우 빠르게 그 방향을 바로잡았습니다,” 라고 트럼프는 말했다.

필리핀 당국자들은 마르코스 대통령이 이번 방미 중 '미국의 인도·태평양 핵심 파트너'가 되기 위해서는 필리핀이 경제적으로 더 강해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할 계획이었다고 전했다.

한편, 마르코스 대통령의 백악관 방문에 맞춰 백악관 인근에서는 시위가 벌어졌다. 시위대는 이민 단속이 계속되는 가운데 미국 내 필리핀 이민자들과 노동자들의 요청에 응답해 달라고 촉구했다.

(Reporting by Andrea Shalal and Trevor Hunnicut; additional reporting by David Brunnstrom in Washington; editing by Ross Colvin, Deepa Babington, Rod Nickel and Nia Williams)

Source: <https://malaya.com.ph/business/business-news/ph-trade-talks-yield-modest-tariff-shift-after-trump-marcos-meeting/>

주한 한국대사, 필리핀 관광에 대한 신뢰 재확인

July 22, 2025 | Joel C. Paredes | BusinessMirror



Ambassador Lee Sang-hwa

필리핀 정부가 한국 관광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진정성 있는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을 지켜보며, 이상화 주필리핀 대한민국 대사는 필리핀이 다시금 한국인들에게 선호되는 관광지로 자리매김할 것이라는 확신을 표명했다.

“안전과 보안에 대한 우려를 완화하는 측면에서, 한국 관광객들이 필리핀을 최고의 관광지 중 하나로 다시 신뢰하게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라고 이 대사는 기자회견과의 오찬 자리에서 말했다.

이 대사는 필리핀 내 자국민의 안전에 영향을 미친 몇몇 불미스러운 사건들에 대해서 언급하면서도,

“우리는 단 한 번도 부정적인 여행 경보를 발령한 적이 없습니다. 조치에 변화가 없었습니다,” 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 대사는, 지난 4월 20일 낮에 팜팡가주 앙헬레스시의 변화한 코리야타운 거리에서 발생한 강도 사건 중 한국인 관광객이 총격으로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국립수사국(NBI) 국장과 함께 사건 현장을 방문했다고 밝혔다.

보도에 따르면, 용의자들이 오토바이를 타고 피해자의 가방을 빼앗으려 하자 피해자가 저항했고, 가슴 부위를 총으로 맞아 사망했다. 이후 용의자 중 한 명이 체포되었다.

“현지의 안전 상황에 대한 우려를 덜어주기 위한 방문이었습니다. 이는 매우 강력한 신호를 보낸 것이며, 필리핀 내 한국 교민 사회에서도 매우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라고 이 대사는 설명했다.

이어 그는 “필리핀 당국의 전폭적인 협조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라고 덧붙였다.

또한 지난 5월에는 국제적 관광지로 잘 알려진 보홀(Bohol) 주를 방문했다고 전하며, 현지 경찰이 외국인 관광객을 지원하는 관광센터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는 귀국 후 이 사실을 공유하면서,

관광부 장관 크리스티나 프라스코(Cristina Frasco)가 이러한 관광지원센터 확대에 매우 열정적이었다고 평가했다. [Cont. page 3]

주한 한국대사, 필리핀 관광에 대한 신뢰 재확인

[Cont. from page 2]

주한 한국대사관이 필리핀 당국에 심각한 보안 우려를 제기한 이후, 필리핀 관광부(DOT)와 필리핀 국가경찰(PNP)은 관광객 안전 강화를 위해 노력을 강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는 한국어를 구사할 수 있는 경찰관 배치 및 주요 관광지 내 경찰 순찰 강화 등이 포함되었다.

“한국은 필리핀을 방문하는 관광객 중 1위를 차지해왔다는 점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러한 추세가 계속되기를 바랍니다,” 라고 이 대사는 말했다.

최근 한국인 관광객 수가 다소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여전히 필리핀의 최대 관광객 유입국이다. 2025년 1월부터 5월까지, 약 19% 감소세가 보고되었지만, 여전히 한국인 관광객은 55만 2천 명에 달했다. 2024년에도 한국은 176만 명으로 전체 방문객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 대사는 현재 양국 정부 간 협력과 우려 해소를 위한 조율이 이뤄지고 있다며, 한국문화원을 통해 한국어를 배우고자 하는 경찰관 수를 더 늘릴 의향이 충분히 있습니다,” 라고 밝혔다.

홍수 대응 프로젝트

한편, 이상화 대사는 현재 진행 중인 다양한 협력 사업들을 강조하며, 양국 간 향후 협력에 대한 낙관적인 기대를 나타냈다. 그는 먼저, 홍수 관련 프로젝트에 대한 문의가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를 언급했다.

그는 작년 마르코스 대통령과 함께 팜팡가를 방문해 홍수 조절 시스템 준공식에 참석했던 일을 떠올리며 다음과 같이 말했다. “팜팡가의 2단계 홍수 통제 시스템 사업을 조속히 착수하길 희망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필리핀 전역에서 진행 중인 공적개발원조(ODA) 프로젝트의 일환이다.

“작년에는 제가 대통령과 가장 자주 동행한 몇 안 되는 대사 중 한 명이라고 생각합니다,” 라며, 지난 9월 민다나오를 방문해 필리핀 최장 해상교량 착공식에 참석했던 일정을 언급했다. 이상화 대사는 올해에도 바탕-카비테 연결교(Batang Cavite Interlink Bridge), PGN, 라구나 호수 순환도로(Laguna Lake Shore Road) 등 다른 핵심 국가 인프라 사업에 추가적으로 기여할 계획을 밝혔다.

그는 또한 필리핀, 미국, 일본이 주도하는 '루손 경제회랑(Luzon Economic Corridor)' 참여에 대한 한국의 강한 관심도 드러냈다.

“트럼프 행정부 시절부터 워싱턴에서 루손 경제회랑이 계속 추진될 것이라는 명확한 입장이 있었다는 점이 기쁩니다. 우리는 이 흐름에 매우 만족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지난해 11월 한국은 몇몇 국가들과 함께 루손 경제회랑 제3차 운영위원회에 초청을 받았습니다. 이 초청은 한국이 미국, 일본, 필리핀이라는 창립국들과 협력하고 파트너십을 구축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라고 강조했다.

Image credits: PNA

Source: <https://businessmirror.com.ph/2025/07/22/south-korean-envoy-renews-confidence-in-phl-tourism/>

ADB, 2025년 필리핀 경제 성장률 5.6% 전망

July 23, 2025 | Anna Leah Gonzales | Philippine News Agency

마닐라 - 아시아개발은행(ADB)이 수요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대외 불확실성으로 인해 성장 전망이 하향 조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필리핀은 올해 동남아시아에서 두 번째로 높은 경제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ADB는 2025년 7월판 ‘아시아 경제 전망(Asian Development Outlook)’ 보고서에서, 필리핀의 올해 경제 성장률이 5.6%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러한 성장률 전망은 베트남(6.3%)에 이어 동남아시아에서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인도네시아는 5%, 말레이시아는 4.3%, 싱가포르르는 1.6%, 태국은 1.8%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됐다.

2026년에는 필리핀의 성장률이 소폭 반등해 5.8%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Cont. page 4]



ADB, 2025년 필리핀 경제 성장률 5.6% 전망

[Cont. from page 3]

그러나 ADB의 이번 최신 전망치는 기존에 예상했던 2024년 6.0% 및 2025년 6.1% 성장률 전망보다 낮은 수치로, 이는 지속되는 대외 불확실성을 반영한 것이다.

필리핀 경제는 올해 1분기에 5.4% 성장했다.

ADB는 “국내 수요는 6.7% 증가했으며, 이는 인플레이션 완화와 통화정책 완화에 힘입은 결과입니다. 그러나 수입 증가가 수출을 앞지르면서 순수출이 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습니다,” 라고 분석했다.

또한,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는 5월 50.1에서 6월 50.7로 소폭 회복되었다고 전했다. “단기적인 소비자 심리는 긍정적이었으며, 5월 실업률은 3.9%로 낮은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해외 송금 증가율도 3.0%를 기록하며 가계 소비를 지탱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라고 ADB는 덧붙였다.

다만, “전 세계적인 정책 불확실성이 고조되면서 기업 신뢰도는 다소 약화되었다,” 고 밝혔다.

ADB는 동남아 대부분 국가들의 2025년 및 2026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했으며, 이는 세계 경제 성장 둔화 및 교역 불확실성 확대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외부 여건 악화로 기업과 소비자의 심리가 위축되고 있으며, 이는 동남아 지역의 투자 흐름에 차질을 줄 수 있습니다,” 라고 우려를 표했다.

“이 지역 최대 경제국인 인도네시아를 제외한 대부분의 동남아 국가들이 향후 2년간 더 낮은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ADB는 2025년 필리핀의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기존 3.0%에서 2.2%로 하향 조정했다.

2026년에는 인플레이션이 3.0% 수준에서 안정될 것으로 내다봤다.

Source: <https://www.pna.gov.ph/articles/1254894>

상품 수출에 대한 제한된 의존도가 필리핀의 지속 가능한 성장 잠재력을 높인다

July 23, 2025 | Dexter Barro II | Manila Bulletin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는 필리핀과 같이 보다 다양화된 경제 구조를 갖춘 국가들이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룰 수 있는 잠재력이 크며, 개발도상국들이 주요 원자재 수출 의존도를 줄여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2025년 7월 22일 발표된 ‘2025 원자재 의존도 현황 보고서(State of Commodity Dependence Report)’에 따르면, UNCTAD는 143개 개발도상국 중 95개국이 여전히 수출 시장에서 원자재에

의존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최빈개도국 및 내륙개도국의 약 80%, 소도서개도국의 60%가 이러한 과도한 원자재 의존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UNCTAD는 한 국가가 전체 수출 수익의 60% 이상을 원자재 수출에서 얻을 경우, 해당 국가를 '원자재 의존국'으로 간주합니다.

보고서는 원자재 무역을 에너지, 광업, 농업의 세 가지 주요 부문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보고서는 “이러한 1차 산품에 대한 고착된 의존은 오랫동안 세계적인 우려의 대상이었으며, 이는 산업 발전을 저해하고, 세계 시장 가격이 변동할 경우 국가의 재정 안정을 위협한다” 고 지적했습니다.

UNCTAD는 필리핀을 원자재 비의존국(non-commodity dependent economy)으로 분류했으며, 2021년부터 2023년까지의 기간 동안 필리핀의 원자재 수출 비중은 20.5%에 불과했습니다.

부문별로는 농산물이 10.1%로 가장 높았고, 광산물이 9.1%, 에너지가 1.3%로 뒤를 이었습니다.

필리핀 통계청(PSA)에 따르면, 지난해 필리핀 전체 수출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 것은 제조업 제품으로, 수출액은 583억 9천만 달러였으며, 전체 수출의 약 80%를 차지했습니다. 그 뒤를 광물 제품(9.6%)과 농산물 기반 제품(8.1%)이 이었습니다. [Cont. page 5]

상품 수출에 대한 제한된 의존도가 필리핀의 지속 가능한 성장 잠재력을 높인다

[Cont. from page 4]

또한, 필리핀 중앙은행(Bangko Sentral ng Pilipinas)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총생산(GDP)에 가장 큰 기여를 한 부문은 서비스 부문으로, 전체의 62.9%를 차지하며 총 16.72조 페소에 달했습니다.

제조업 및 광업을 포함하는 산업 부문은 29.1%를 차지하며, 7.34조 페소의 가치를 기록했습니다.

농업, 임업, 어업 부문은 GDP의 8%에 해당하며, 약 2.4조 페소에 달하는 기여를 했습니다.

UNCTAD는 이러한 산업 구성 덕분에 필리핀이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룰 수 있는 유리한 위치에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보고서는, 경제의 다변화는 주요 원자재에 부가가치를 더하는 전략과 함께 추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보고서는 “경제 다변화와 부가가치 창출 노력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국가들은 자국의 원자재 자산을 지속 가능하고 회복력 있는 성장의 원동력으로 전환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UNCTAD는 원자재를 고부가가치 제품으로 가공하는 ‘부가가치 창출(value addition)’이 개발도상국들이 경제를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밝혔습니다.

UNCTAD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3년까지의 기간 동안 원자재 무역의 세계 경제 내 비중은 32.7%로, 2012년~2014년의 35.5%보다 낮아졌습니다.

반면, 제조업 제품의 무역 비중은 10년 전 15.5%에서 25.6%로 크게 증가했습니다.

보고서는 “이러한 변화는 원자재를 주로 수출하는 국가들이 세계 무역이 가져다주는 광범위한 혜택—특히 다변화, 혁신, 고부가가치 생산이 주도하는 무역—에서 소외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밝혔습니다.

UNCTAD는 목표 중심의 정책, 전략적 투자, 시장 접근 확대의 결합을 통해 개발도상국들이 회복력 있는 경제로 전환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Source: https://mb.com.ph/2025/07/23/limited-reliance-on-commodity-exports-fuels-philippines-potential-sustainable-growth](https://mb.com.ph/2025/07/23/limited-reliance-on-commodity-exports-fuels-philippines-potential-sustainable-growth)

2분기 무역 긴장 속에서도 한국 경제 0.5% 성장

July 24, 2025 | Agence France-Presse | Philippine Daily Inquirer

서울, 대한민국 - 한국은행은 목요일 발표에서, 무역 긴장이 다시 고조되는 가운데 아시아 수출 대국인 한국의 경제가 2분기에 0.5% 성장했다고 밝혔다.

한국은행은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전년 동기 대비 0.5% 성장했으며, 전 분기 대비로는 0.6% 성장했다”고 전했다.



이번 분기 성장률은 한국은행이 5월에 전망했던 0.5%를 웃돌았으며, 이는 민간 소비의 증가와 수출이 4.2% 늘어난 데에 따른 것으로, 이는 거의 5년 만에 가장 큰 폭의 증가이다.

전문가들은 지난해 12월의 단기간 계엄령 선포와 올해 초 대통령 탄핵 이후 정치적 불안정이 완화된 것도 성장 요인 중 하나로 보고 있다.

하지만 한국은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로부터 무역협정이 8월 1일까지 체결되지 않을 경우 25%의 관세 부과 위협에 직면해 있다.

이미 철강과 자동차 수출에 대해서는 미국으로부터 유사한 관세를 부과받은 바 있다.

이웃 일본이 이미 협정을 체결한 가운데, 한국도 8월 1일 마감 전까지 합의에 도달하기를 기대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경제부총리가 목요일 워싱턴으로 날아가 협상에 나섰다.

현재 워싱턴에 머물고 있는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화요일 기자들에게 “매우 중대한 상황”이라며 “최선을 다해 협상에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

[Source: https://business.inquirer.net/537277/south-koreas-economy-grows-0-5-in-q2-despite-trade-tensions](https://business.inquirer.net/537277/south-koreas-economy-grows-0-5-in-q2-despite-trade-tensions)

경제 단체들, 20대 의회에서 22개 개혁 조치에 대한 행동 촉구하며 대통령과 국회의원들에게 압박

July 23, 2025 | Andrea E. San Juan | BusinessMirror



File photo: President Ferdinand Marcos Jr. delivers his third State of the Nation Address at the House of Representatives in Quezon City, on Monday, July 22, 2024.

필리핀의 주요 경제 단체들과 합동 외국 상공회의소 회원들은 페르디난드 R. 마르코스 주니어 대통령과 필리핀 의회에 에너지, 무역 및 물류, 데이터 전송, 천연 자원 관리 등 다양한 분야에 걸친 22개의 개혁 과제를 제20차 의회에서 우선적으로 추진해줄 것을 촉구하고 있다.

이들 단체는 대통령의 국정연설(SONA)을 앞두고 보낸 서한에서 “국내외적인 도전 과제가 여전히 존재하지만, 필리핀 경제는 기본적인 강점과 성장 잠재력을 지속적으로 보여주고 있으며, 지속 가능한 경제 확장의 명확한 기회가 보인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러한 잠재력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과감하고 단호한 정책 조치가 필요하다”고 경제 단체들은 강조했다.

이들 단체는 이번에 제안된 입법 조치들이 에너지, 데이터 전송, 천연 자원 관리 등 다양한 분야에 걸친 “주요 개혁”을 포함하고 있다고 밝혔다.

해당 입법 과제에는 다음이 포함되어 있다: 전력산업 규제법(EPIRA) 개정안, 사이버보안법, 전자정부법(E-Governance Act), 디지털경제법, 데이터 전송의 오픈 액세스/코넥타동 피노이 법(Konektadong Pinoy Act), 정보접근의 자유법, 외국인투자자의 장기 임대 개정안, 국가 단일 창구 시스템(National Single Window System), 국가 토지 이용법(National Land Use Act), 인공지능(AI)법, 블루 이코노미법, 민간항공청법 개정안, 필리핀 항만청(PPA) 현장 개정안, 공휴일 합리화법(Holiday Rationalization Act) 등이다.

입법 노력과 더불어, 경제 단체들은 “즉각적인 효과를 낼 수 있고 투자자 신뢰를 크게 높일 수 있는” 행정부 차원의 조치들도 강조했다.

이러한 조치에는 기업환경 개선법(Ease of Doing Business Act) 및 기업회복제체인센터브법(CREATE MORE)의 효과적인 이행,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여행 요건 간소화, 그리고 비거주 외국법인에 대한 세금을 다룬 RMC 5-2024의 검토 및 일시 중단 등이 포함된다.

그 외에도 행정부 조치로는 다음 사항들이 포함되어 있다: 모든 수입 품목에 대한 사전 국경 기술 검증 및 국경 간 전자 송장 발급을 위한 디지털 통합 시스템(AO-23) 제검토, 납세 편의법(Ease of Paying Taxes Act)의 이행 개선, 식약청 등록 수수료 개정안(AO 2024-0016) 제검토, 민간 부문의 참여를 더욱 촉진하기 위한 생산자책임확대법(EPR법)의 제검토 등이다.

경제 단체들에 따르면 이러한 조치들은 “국가 발전을 지원하려는 비즈니스 커뮤니티의 의지를 반영한 통합 개혁 아젠다”이며, “양질의 투자를 유치하고, 의미 있는 고용을 창출하며, 장기적이고 포용적인 경제 성장을 위한 국가의 경제 기반을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서한에는 다음 단체들이 서명했다: 주필리핀 미국상공회의소(AmCham), 국제선사협회(AISL), 주필리핀 캐나다상공회의소(CanCham), 필리핀 의류수출업협회(CONWEP), 주필리핀 유럽상공회의소(ECCP), 필리핀 재무임원협회(FINEX), 주필리핀 일본상공회의소(JCCI), 주필리핀 한국상공회의소(KCCP), 필리핀 경영자협회(MAP), 필리핀 다국적기업지역본부협회(PAMURI), 필리핀 반도체전자산업협회(SEIPI).

Image credits: Presidential Communications Office

Source: <https://businessmirror.com.ph/2025/07/23/business-groups-press-pbbm-and-lawmakers-to-act-on-22-reforms-in-the-20th-congress/>

필리핀 수출업체들, 미국의 19% 관세로 ‘험난한 등정’ 직면

July 24, 2025 | Justine Irish D. Tabile | BusinessWorld

미국이 필리핀산 제품에 부과한 19%의 관세는 필리핀 수출업체들의 경쟁력을 이웃 동남아 국가들과 비교해 떨어뜨릴 가능성이 높다고 전문가들이 지적했습니다.

필리핀외국바이어협회(FOBAP)의 로버트 M. 영 회장은 “19%의 관세가 부과되면, 필리핀 수출품이 미국 시장에서 경쟁력을 유지하는 데 있어 ‘힘겨운 오르막길’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Cont. page 7]

필리핀 수출업체들, 미국의 19% 관세로 ‘힘난한 등정’ 직면

[Cont. from page 6]

“우리가 군(軍)에 편의를 제공하고 호의를 베풀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았다는 점이 정말 가슴 아팠습니다,” 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영 회장은 “상호 관세가 적용되기 전에도, 우리의 가격은 이미 방글라데시, 베트남, 그리고 중국 등 지역 내 다른 경쟁국들보다 15% 더 높았습니다. 이제 우리의 관세율이 이들과 비슷한 19~20% 수준이 되면서, 상황은 정말, 정말 힘든 오르막길이 될 것입니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미국은 도널드 J.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페르디난드 R. 마르코스 Jr. 필리핀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회담을 가진 이후, 예고됐던 20%에서 19%로 필리핀산 제품에 대한 관세율을 소폭 인하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여전히 트럼프 대통령이 4월에 발표한 17%의 ‘상호 관세’ 보다 높은 수준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 플랫폼 ‘트루스 소셜(Truth Social)’에 “우리는 무역협정을 체결했으며, 이에 따라 필리핀은 미국과의 시장을 개방하고 무관세로 거래하게 됐다. 필리핀은 19%의 관세를 부담하게 될 것” 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필리핀산 제품에 대한 19% 관세는 인도네시아에 적용되는 관세율과 동일하며, 베트남의 20%보다는 소폭 낮습니다. 그러나 이는 동남아시아 국가 중 싱가포르(10%)에 이어 두 번째로 낮은 수준입니다.

영 회장은 FOBAP 회원사들이 미국 바이어들과 비용 분담 협상을 이미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또한 회원사들이 가격 경쟁력이 있는 고가 제품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이 분야에서 우리는 다른 아세안 국가들과의 경쟁에서 가격 전략 면에서 어느 정도 기회를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고급 패션 제품은 우리가 미국 시장과의 거래를 지속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또한 영 회장은 FOBAP 회원사들이 러시아, 호주, 캐나다, 유럽연합(EU) 등 다른 시장으로도 눈을 돌릴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너무 높다”

한편, 회계법인 레예스 타칸동(Reyes Tacandong & Co.)의 수석 고문인 조너선 라벨라스(Jonathan L. Ravelas)는, 필리핀의 자동차 시장 개방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관세가 너무 높다고 지적했습니다.

라벨라스 고문은 Viber 메시지를 통해 “이러한 불균형은 공정한 무역을 저해하고 필리핀 수출업체들을 경쟁에서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한다. 상호주의는 지속가능한 양자 무역의 핵심” 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번 무역 협정으로 소매업, 물류업, 식품·의약품·소비재 등 수입에 의존하는 부문이 혜택을 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들 부문은 원가가 낮아져 이윤이 개선될 수 있다” 는 것입니다.

그러나 일부 미국산 제품에 대해 관세가 0%로 책정되면 값싼 미국산 제품이 필리핀 시장에 대거 유입되어 국내 산업이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습니다.

“미국산 수입품에 대해 관세가 전혀 없을 경우, 현지 시장은 값싼 미국산 제품으로 넘쳐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보호 조치가 도입되지 않으면 국내 산업이 위협받을 수 있다” 고 라벨라스 고문은 경고했습니다. 그는 특히 전자제품, 의류, 농업 부문이 가장 큰 피해를 볼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마르코스 대통령은 워싱턴에서 기자들에게 “필리핀은 미국산 자동차에 대해서만 시장을 개방할 것” 이라고 밝혔습니다.

영국 경제분석기관 캐피털 이코노믹스(Capital Economics)의 수석 아시아 이코노미스트 가레스 레더(Gareth Leather)는 이번 관세 합의가 필리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그리 크지 않을 것” 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그는 “필리핀은 아시아 국가 중 미국 수요에 가장 적게 의존하는 국가 중 하나” 라고 말했습니다.

레더 수석은 보고서에서 “필리핀이 이번 협정을 통해 경쟁국 대비 불리한 위치에 놓이지 않게 된 것은 분명 긍정적” 이라면서도 “19%라는 관세율이 결국 역대 국가들이 직면할 수준과 비슷해진다는 점에서 일부 위험 요인을 해소한 효과가 있다” 고 평가했습니다.

그는 또 “필리핀이 미국과의 협상에서 더 많은 양보를 얻어낼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도 있었지만, 결국 19%에 합의했다는 사실은 여전히 협상을 진행 중인 다른 국가들 역시 20% 이하로 낮추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고 밝혔습니다. “이제 20% 수준이 중국을 제외한 역대 국가들에 대한 기준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있다” 고 덧붙였습니다. [Cont. page 8]



BW FILE PHOTO

필리핀 수출업체들, 미국의 19% 관세로 ‘험난한 등정’ 직면*[Cont. from page 7]*

전 관세위원회 위원 조지 N. 만사노(George N. Manzano)는 관세율 인하폭이 “상당히 미미하고 기대에 못 미친다” 고 말했다.

“우리가 고작 1%만 감면받는다면, 우리가 양보한 것에 비해 너무 적은 수준입니다. 우리는 19%보다 더 낮은 관세율을 기대했기 때문에, 1% 감면은 너무 적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그는 말했다.

리잘 상업은행(Rizal Commercial Banking Corp.)의 수석 이코노미스트 마이클 L. 리카포트(Michael L. Ricafort)는 필리핀 경제가 수출 중심이 아니기 때문에, 이번 관세로 인한 수출 영향은 그리 크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필리핀 경제는 수출에 의존하는 구조가 아니며, 필리핀의 상품 수출 규모는 연간 기준으로 주요 아세안 국가들에 비해 3~5배 낮은 수준입니다,” 라고 그는 설명했다.

“하지만 이번 미국의 수입 관세 인상을 앞두고 필리핀 수출이 이미 일부 선출하되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번 관세 전쟁으로 인한 세계 경제 성장 둔화가 “간접적으로 필리핀 경제에 부담을 줄 수 있다” 고 지적했다.

한편, 일부 전문가들은 필리핀 정부가 미국과의 협상을 지속해 더 낮은 관세율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리 이웃 국가들이 적극적으로 협상에 나서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최선을 다해 더 낮은 관세를 받아내야 합니다,” 라고 아테네오 경제연구개발센터(Ateneo Center for Economic Research and Development)의 퍼시벌 K. 페냐-레이스(Ser Percival K. Peña-Reyes) 소장은 브이버(Viber) 메시지를 통해 밝혔다.

그는 이번 미-필 무역 협정의 조건이 분명히 미국에 유리하다고 지적했다.

“이번 협정은 미국 수출에 유리하고, 필리핀 생산자에게는 불리한 일방적인 조치입니다. 필리핀은 지속적으로 시장을 개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라고 필리핀 개발연구원(Philippine Institute for Development Studies)의 선임 연구원 존 파올로 R. 리베라(John Paolo R. Rivera)는 전했다.

리베라 연구원은 또한 필리핀이 세계무역기구(WTO)와 최혜국대우(MFN) 규정을 준수하고 있는 반면, 미국은 자국의 무역수지 기준에 따른 상호주의를 앞세우며 이를 일방적으로 포기했다고 지적했다.— *with Luisa Maria Jacinta C. Jocson and Aubrey Rose A. Inosante*

Source: <https://www.bworldonline.com/top-stories/2025/07/24/687143/philippine-exporters-to-face-hard-climb-with-19-us-tariff/>

Contact Us**Korean Chamber of Commerce
Philippines, Inc. (KCCP)**

Unit 1104 Antel Corporate Center, 121
Valero St., Salcedo Village, Makati City
(02) 8885 7342
info@kccp.ph | www.kccp.ph



FIRST GRAND TRI-CONTINENT GOLF CHALLENGE
2025

JULY 30, 2025
THE MANILA SOUTHWOODS LEGENDS COURSE



Scan to register!

TOURNAMENT FEE:
INCLUDING GREEN FEE, CADDIE FEE
GOLF CART (SHARING), LUNCH
GIVE-AWAYS AND 1 RAFFLE STUB

P10,000 PER PLAYER

NOTE: 30% DISCOUNT FOR MSGCC MEMBERS

Play for your Team and have a chance to win a RT ticket to North America and 1 RT ticket to Asia sponsored by:





Golf Cart Sponsors:




THE ALL AMERICAS TEAM
THE ALL ASIA & PACIFIC TEAM
THE ALL EUROPE TEAM

Organized by:



Canadian Chamber of Commerce in the Philippines

Supported by:





In cooperation with:






Gold Sponsors:




Silver Sponsors:






Bronze Sponsors:




Logistics, Raffle & Give-away Sponsor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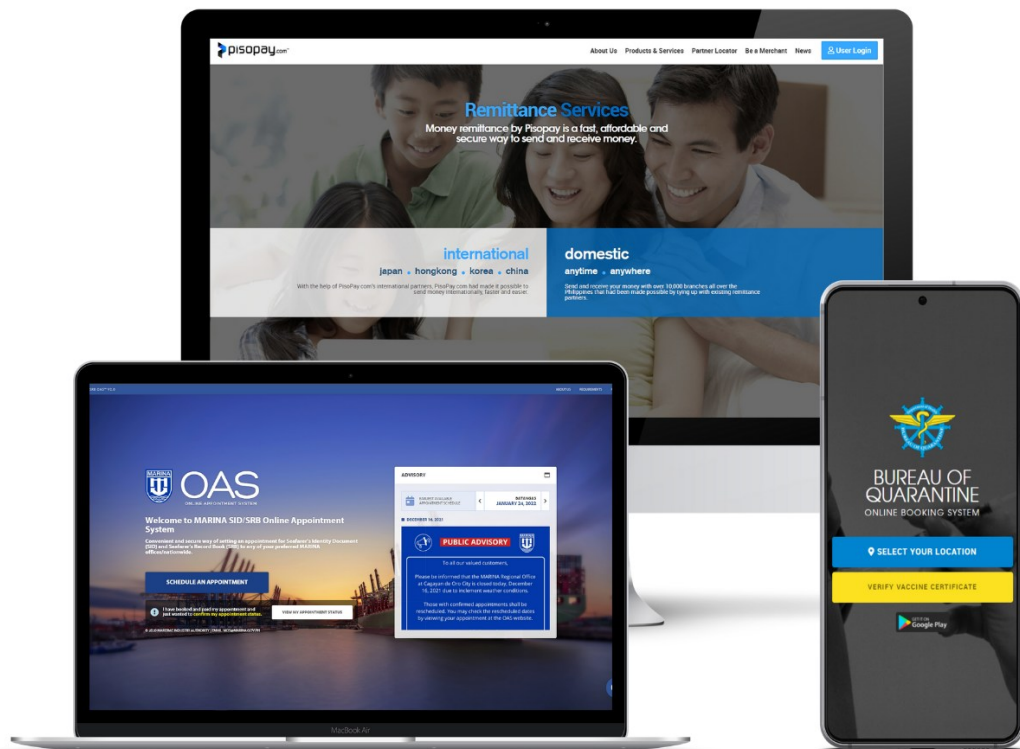





This KCCP E-Newsletter is supported by:



Elevating the definition of Fintech Standards



CONTACT US

- (02) 8242 8153
- info@pisopay.com.ph
- <https://www.pisopay.com.ph>
- Pisopay Bldg, 47D Polaris, Makati,
1209 Metro Manila

